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발전 방안 모색 -일본의 고령자 생애학습을 기반으로-

이진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Senior Education in Korea -Based on Lifelong Learning for the Elderly in Japan-

Jin Ah Lee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 약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길어진 노령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수명의 연장에 따라 예전에 비해 약 20여년 정도 길어진 노령기를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생애학습으로서의 노인교육에 주목하고 그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유의한 교훈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기관인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서 발간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교육발전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애학습 내용 및 실시장소의 다양화, 아웃리치 교육의 확대, 그리고 코디네이터 육성 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고령자, 생애학습, 일본, 발전방안, 문헌검토

Abstract In the situation where various social problems are raised due to rapid aging, how to send a long period of old age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As the life span is extended, education for the elderl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eans of sending meaningful and effective old age that is about over 20years longer than b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lderly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in Japan where has already entered a super-aged society. This is because it will be expected to find meaningful lessons and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Korea, which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complete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and repor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d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which are institutions related to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this, the practical and policy support for the elderly education development in Korea was suggested. In specific, diversification of lifelong learning contents and execution places, expansion of out-reach education, and fostering coordinators were provided.

Key Words : Senior, Lifelong learning, Japan, Improvement plan,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fered from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Jin Ah Lee(jj88@cup.ac.kr)

Received April 13, 2018

Revised May 18,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1. 서론

일본의 경우 197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4년 뒤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이 1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 20.2%, 2010년 23%가 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1]. 우리보다 30년 정도 일찍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노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해왔다[2]. 특히 인생 100년 시대라고 하는 장수사회에서의 고령자는 이전까지의 고령자와는 다른 새로운 고령자관(觀)이나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생애학습* 역할의 중요성[3]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4] 2015년 고령인구 비율 12.8%가 2016년 20%, 2037년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대수명은 2015년 82.1세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20여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5-7]이 주목을 받고 있다. 노인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퇴직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8],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돕고[9], 활동적 고령화와 역량 강화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10], 또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교육이 필요하다[11]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교육은 그 내용과 구성이 단순하고 획일적이어서 현재의 노인의 기대수준과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점은 교육 수준이 높고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을 만족시키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5]. 노인 교육은 노인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문제[12]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보다 앞서 노인의 생애교육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그 발전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온 일본의 경험은 우리의 노인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특히 현실화되고 있는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2012년 일본의 문부과학성 초고령 사회의 생애학습에 관한 검토회가 발표한

장수사회의 생애학습 보고서 내용 중 고령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토대로 머지않은 시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일본노인의 현황과 노인교육

2.1 일본의 고령화와 고령자 인식

2017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670만 6천인이며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3,515만 2천인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즉 고령화율은 27.7%이다[13]. 고령화율은 2065년에는 38.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중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25.5%로 약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며, 15세부터 64세까지의 현역세대 1.3명이 고령자 1인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평균수명은 2015년 현재 남성 80.75년, 여성 86.99년인데 2065년에는 남성 84.95년, 여성 91.35년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은 90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4].

1994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자 일상생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15],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이 68.2%(만족하고 있음 12.0%, 그저 만족하고 있음 56.2%), 불만이 28.8%(대체로 불만 20.6%, 불만 8.2%)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9년 조사에 비해 만족이 13.6%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별로 보면 불만은 단독세대에서 37.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건강상태별로 보면 만족은 좋다에서 82.0%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취업형태별로 보면 만족은 회사 혹은 단체의 직원의 경우 90.5%, 재택근무 78.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별로 보면 만족은 여유 있게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다가 95.1%, 여유는 없지만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다가 86.9%로 나타나 생활에 걱정이 없는 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수입별로 만족도를 보자면, 만족은 25만 엔-30만 엔 미만에서 81.4%, 30만 엔-40만 엔 미만에서 84.0%, 40만 엔-60만 엔 미만에서 91.7%, 60만 엔-80만 엔 미만에서 86.7%, 80만 엔 이상에서 96.3%로 나타나 대체로 수입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삶의 보람(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다가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생애학습으로 표기함.

65.5%(충분히 느끼고 있음 15.7%, 다소 느끼고 있음 49.8%), 느끼지 못한다가 26.9%(별로 느낄 수 없음 23.2%, 전혀 느끼지 않음 3.7%)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지난 조사에 비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가 13.1% 저하되었다. 삶의 보람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혹은 다소 느끼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 삶의 보람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취미나 스포츠에 열중하고 있을 때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 또는 지인과 식사, 잡담하고 있을 때가 42.3%,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39.4%, 여행 갈 때 33.5%, 일에 몰두할 때 24.5%, 손자녀를 돌보고 있을 때 24.0%,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들었을 때 23.3%로 조사되었다. 자신이 고령자라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3.4%, 아니오는 51.3%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46.3%, 남성의 경우 40.4%가 자신을 고령자라고 느낀다고 답해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75-79세 66.2%, 80-84세 78.7%, 85세 이상에서 85.6%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을 고령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동거형태별로 보면 단독세대에서 54.3%로 높았고, 건강상태별로는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70.2%가 자신을 고령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요개호인정별로 보면 예라는 대답이 요지원·요개호에서 80.3%로 조사되었고, 현재 직업형태별로 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서 53.6%로, 현재의 수입별로 보았을 때는 5만 엔 미만에서 65.2%, 5만 엔-10만 엔 미만에서 54.0%로 조사되어 대체로 수입이 낮을수록 자신을 고령자로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친한 벗이나 동료의 정도에 따라 보았을 때, 없다고 답한 63.4%가 자신을 고령자로 느끼고 있다고 답하여 친한 벗이나 동료가 없다고 느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고령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때 이렇게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체력이 악화되었다고 느낄 때가 58.0%로 가장 높았고, 기억력이 악화되었다고 느낄 때가 18.6%, 외형이 변화되었다고 느낄 때가 6.5%,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령자로 취급받을 때가 5.8%, 사고능력이 변화되었다고 느낄 때가 3.3%,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이나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느낄 때가 2.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몇 살부터가 고령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29.1%로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 27.9%, 80세 이상 18.4%, 65세 이상은 6.5%로 조사되었고, 연령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도 10.4%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지난 조사결과인 201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70세 이상은 13.2% 감소되었으나, 반면 80세 이상은 7.6% 상승되었고, 연령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5.9% 증가된 수치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는 몇 살 이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25.2%로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이 23.4%, 70세 이상 18.1%, 85세 이상 5.3%, 65세 이상 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도 19.9%에 이르렀다.

2.2 일본 노인교육 정책 및 생애학습의 흐름

전후 일본의 고령자 정책은 고령 약자 구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에서 생애교육이 제창된 이후, 고령자정책은 생애교육정책 속에서 고령자교육정책으로서 전개되어 왔다. 일본의 고령자 교육은 주로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두 개의 중앙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16], 후생노동성은 주로 건강유지 및 사회참가활동의 일환으로, 문부과학성은 고령자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17]. 이외에도 내각부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한 고령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의 고령자 교육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후생노동성의 고령자교육 정책

먼저 구(旧)위생성은 전쟁 후부터 50년대 노인약자구제라는 복지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시작했다. 60년대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의 성립에 의해 정책의 대상을 건강한 노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인클럽을 토대로 한 노인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70년대 전국에서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한 노인대학이 성행하였으나, 내용은 오락에 편중되었다. 80년대 구위생성이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이른바 골드플랜을 책정함과 동시에 구노동성이 실버인재센터를 설립하고, 노인이 경험이나 능력을 사회에서 활용하여 삶의 보람만들기의 학습 환경을 정비했다. 90년대는 생애학습진흥기본법 제정에 의해 도도부현에 대형 노인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복지 관점부터 교육관점까지를 포함한 노인교육이 진행되어 왔다[16].

2.2.2 문부과학성의 고령자교육 정책

구(旧)문부성의 고령자교육정책을 살펴보면, 1949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청소년과 성인이 사회교육 대상자로, 고령자의 학습활동은 주목받지 못했다. 생애교육은 1965년 유네스코 제3회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에서 제창된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에도 도입되었으며, 구문부성을 중심으로 생애교육 이념이 정책 속에 담겨지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고령자교육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1965년 고령자학급의 장려정책이 최초이며, 이것은 노인클럽과는 다른 노인 학원 만들기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었다. 1971년 사회교육심의회답신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교육의 모습에서는 생애교육의 이념이 담겨졌으며, 고령자학습은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리잡았다. 본 답신에서는 개인차에 따른 고령기에 적합한 사회적 능력, 자립, 세대 교류, 삶의 보람 창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1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까지의 복지·의료를 중심으로 한 소극적 고령자보호정책에서 고령자의 경험·능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회적 활용정책으로의 변경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생애교육과 생애학습에 관한 개념 차이와 용어의 구분이 본격적으로 서술되어, 이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70년대에 도입된 생애교육정책이 서서히 생애학습정책으로 전환했다. 구문부성은 종래 시정촌의 교육행정이 실시해왔던 고령자교실과 고령자인재활용에 대한 조성사업의 통합, 그리고 복지관계부국과 노인클럽 등의 관계단체를 연계시켜, 1984년 고령자삶의보람추진종합사업을 발족시켰다. 또한 고령자의 학습요구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부터 지역의 대학이나 민간교육사업 등과도 연계를 꾀하면서, 도도부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인 장수학원을 개설하여, 수료자를 지역활동의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생애학습진흥정비법이 제정되어 도도부현 수준의 생애학습진흥이 초점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행정계열의 장수학원(1989)과 복지행정계열의 밝은장수사회만들기추진기구(1990)에 의해 고령자의 삶의 보람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어, 고령자교육 영역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4년부터는 학습활동 등을 통한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사회참가추진종합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전국고령자사회참가포럼, 고령지지도자양성사업, 고령자학습활동추진사업의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전개되어, 고령자 학습과 사회참가활동의 종합적인 촉진을 도모하였다[16].

1997년 3월에는 생애학습심의회에서 생애학습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책에 관하여가 공표되어, 지역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의 참가를 촉진하는 학습활동의 충실, 직업능력의 육성, 경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정비 등이 제기되었다. 1999년 6월 생애학습심의회 답신 학습성과의 폭 넓은 활용-생애학습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책에 관해서-에서는 고령자의 경력 개발을 큰 과제로 삼았고, 어떠한 방책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후의 고령자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초고령사회의 생애학습에 관한 검토회는 2012년 3월 장수사회의 생애학습에 관하여-인생 100년 몇 살이 되어도 배우는 행복 행령(幸齡)사회-라는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고령자관이 고령자의 실태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장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고령자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 학습내용 및 방법의 강구와 충실, 세대별·성별 특성에 대한 배려, 학습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서 찾아가는 생애학습의 추진, 관계기관 상호 연계의 촉진, 학습 성과 활용의 촉진, 코디네이터 기능의 정비, 그리고 세대 간 교류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의 의론 정리에서는 생애단계나 놓여진 상황에 따른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 학습이 계속될 수 있고, 그 성과를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학습사회의 실현이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하며, “고령자가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이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의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기능을 지역참가·사회공헌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 등의 기회 충실에 대해, 고령자복지나 고령자취업지원, 마을만들기·지역 활성화 등의 관련부국들도 연계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혀, 이후의 고령자학습 진로가 제시되어 있다[18].

2.2.3 내각부의 고령사회 대책관련 고령자교육

고령자교육은 고령사회대책 속에서도 강하게 의식되어 왔는데 내각부는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6년 7월 고령사회대책대강이 만들어져 생애학습사회의 형성과 고령자의 사회참가활동이 추진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이 개정되어 부정적인 이미지의 고령자상(像)으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의 고령자상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2012년 9월에는 새로운 대강이 결정되었는데,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948년 전후 출생한 단카이(団塊)세대가 고령자층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령자상의 고정관념을 바꿔, 의욕과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국민 인식 개혁을 꾀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가활동의 촉진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고령자 정보습득지원, 학교교육지원·양육지원 등의 고령자가 활약 가능한 장의 충실 등을 통해 고령자와 젊은 세대 간의 교류 기회의 확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하는 고령자의 자주적인 사회참가활동지원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습활동의 촉진으로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중에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고령자를 포함한 사회인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제공을 위한 사회인 입시의 실시, 통신제 대학·대학원의 설치, 공개강좌, 과목 등 이수생 제도나 이수증명제도의 활용 등과 같은 지원과 함께 방송대학의 학습 환경의 정비·충실을 논하고 있다[18].

3. 생애학습의 현황 및 특징

3.1 생애학습의 의미와 현황

2006년 12월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민한 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연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생애에 걸쳐, 모든 기회, 모든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적절하게 살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애학습 이념을 제안하였다. 생애학습이란 일반적으로 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취미·교양 강좌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으로 오해되어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애학습이란 자기 충실과 생활 향상을 위해 인생의 각 단계에서의 과제나 필요에 따라, 모든 장소, 시간, 방법에 의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자유롭고 광범위한 학습을 의미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의도적·조직적인 학습활동만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 취미, 레크리에이션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폭넓고 다양하다[3].

2015년 내각부에서 실시한 생애학습에 관한 여론조사[19]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생애학습의 실시상황에 대한 복수 대답에서 건강·스포츠(건강법, 의학, 영양, 조깅,

수영 등)가 21.0%, 취미적인 것(음악, 미술, 꽃꽂이, 무용, 서도,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비율이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애학습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52.3%였다. 이것은 3년 전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스포츠 30.4%, 취미적인 것은 25.7%였던 것과 비교할 때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생애학습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생애학습을 하는 이유를 물으니 학습을 좋아하거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고,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서 43.2%,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 32.1%,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취직·이직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8.0%, 자유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27.8%, 가정·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학습을 좋아하거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 59.4%,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서 48.8%,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 42.3%, 자유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34.6%, 가정·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32.4%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학습을 좋아하거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 다른 사람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 가정·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는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취직·이직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시한 생애학습의 형식에 대해 공민관이나 생애학습센터 등 공적기관의 강좌나 교실이 가장 많은 39.9%로 나타났고, 자택에서의 서적 등의 학습활동 31.3%, 동호인이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임, 서클 활동 30.2%, 문화센터나 스포츠클럽 등 민간 강좌나 교실, 통신교육 29.6%, 직장의 교육, 연수 2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공민관이나 생애학습센터 등 공적기관의 강좌나 교실, 동호인이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임, 서클 활동, 그리고 문화센터나 스포츠클럽 등 민간 강좌나 교실, 통신교육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자택에서의 서적 등의 학습활동, 직장의 교육, 연수의 경우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의 활용 상태에 대해 자신의 인생이 보다 풍요롭게 되었다는 사람의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있다 45.0%, 일이나 직업상 활용하고 있다 32.6%, 가정·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가 32.2%로 나

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가정·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가 36.7%였던 것과 비교하자면 낮아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어떤 장소나 형태로 생애학습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에서는 공민관이나 생애학습센터 등 공적기관의 강좌나 교실이 37.7%로 가장 높았고, 문화센터나 스포츠클럽 등 민간 강좌나 교실, 통신교육 26.0%, 동호인이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임, 서클 활동 26.0%, 자택에서의 서적 등의 학습활동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애학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6.0%였다.

생애학습의 진흥책에 대한 질문에 생애학습을 위한 공민관이나 도서관, 학교시설의 개방 등과 같은 시설의 증가를 주장한 사람들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았고, 일과 관계된 지식의 습득이나 자격취득 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33.8%, 생애학습에 관한 정보제공의 충실 33.3%, 생애학습을 지원하는 사람 즉 도서관이나 박물관, 생애학습에 관한 NPO 직원 등의 육성이나 배치 32.2%,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생애학습 활동을 위한 휴가제도 등의 충실 29.5%, 정보단말이나 인터넷을 사용한 생애학습 활동의 충실 27.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생애학습을 위한 공민관이나 도서관, 학교시설의 개방 등과 같은 시설의 증가는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생애학습 활동을 위한 휴가제도 등의 충실은 남성에게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Result of Public Survey of Lifelong Learning

Question	Result(Multiple Response)
Implementation State	Health·sports(medicine, nutrition etc) 21.0% Hobby(music, art, recreation etc) 18.8% No experience 52.3%
Reasons for Learning	Like to learn or to enrich one's life 54.8% To maintain or promote health 43.2% To make fellowship or to make friends with others 32.1%
Conducted Lifelong Learning Style	Lectures and lessons by public institutions 39.9% Learning activities at home 31.3% Affinity group, circle activities 30.2%
Lifelong Learning Utilization Situation	Becoming one's life more richer 52.1% Maintaining or promoting one's health 45.0% Utilizing for one's work or for job searching 32.6%
Desired Lifelong Learning Style	Lectures and lessons by public institutions 37.7% Lectures and lessons by private institutions, correspondence education 26.0% Learning activities at home 24.5%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Increasing institutions for lifelong education 40.6%
	Financial support for learning of knowledge and license relating to work 33.8%
	Providing information about lifelong education 27.3%

3.2 생애학습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생애학습 특히 검토회 자료를 통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학습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장소나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광범위한 학습이라는 생애학습의 의미에 맞게 학습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근처에 학습을 위한 시설이나 장소가 없는 경우, 혹은 신체적 사유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학습활동에 참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출장강좌 도입이나 통신강좌, ICT의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서비스 실행이 그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나 지역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의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공개강좌나 고령자 특성을 배려한 커리큘럼의 개발 등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자가 배우기 쉬운 환경정비와 더불어 방송대학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고령자의 사회참가 및 공헌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학습관련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학습 성과의 활용을 원하는 고령자와 지역 시설이나 기관과의 연결을 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코디네이터의 육성 및 활용, 그리고 세대 간 교류 촉진을 담고 있다. 생애학습에 관한 검토회는[3], 이러한 세대 간 교류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지식이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만들기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4. 결론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일본에서는 생애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고야시의 경우 교육위원회 생애학습부생애학습과를 중심으로 나고야시민대학, 대학연계강좌, 시민대학공개강연회 등 다양한 강좌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호주의 개호자 지원, 안티에이징, 생애현역-지역데뷔 강좌-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애학습센터, 여성회관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강좌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령자 수요가 많고, 고령자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연결되고 있다. 동경도 나카노구의 생애학습대학에서는 1년차에는 건강, 경제, 역사 등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역을 테마로 하는 학습기회가 늘어나고 졸업 후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이 가능한가를 학습하고 있다[20].

일본의 생애학습 내용에 근거한 우리나라 노인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학습을 많은 노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화하고 실시 장소도 다양화해야 한다. 즐거움이 나 취미 위주의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직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노인교육의 활성화[10] 및 노인들의 영양이나 건강을 위한 요리교실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ICT관련 기술 및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을 노인교육의 장소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21], 도서관 등의 활용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둘째, 소외지역이나 학습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이나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주는 아웃리치 교육 등의 확대 및 실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노인교육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인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교육 욕구가 있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노인의 생애학습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학습과 관련한 상담에서부터 학습의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이나 근로 등의 활동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노인과 시설 및 기관 등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기능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육성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였고, 노인교육지도사라는 민간 자격도 사단법인에 의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22],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담당자 양성 혹은 노인에 대한 이해에 중심을 둔 교육으로, 일본의 생애학습에서 의미하는 코디네이터의 역

할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노인의 생애학습을 보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단체 및 자원봉사 기관, 대학, 그리고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지원하고 제공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계한 윈스톱 서비스가 실시되어져야 한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노인교육 정보센터의 구축[10]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생애학습으로서의 노인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평생교육의 발전방안은 살펴보았다.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맞이하게 될 사회적 현상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의 생애교육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이러한 생애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분석과 평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Japan. (2016). Statistics Topics, No.97.
- [2] M. S. Shin. (2006). A Study on Japanese Elderly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3, 225-248.
- [3]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2012). *Lifelong Learning Plan of Longevity Society-100Years of Life Happy Learning at All Ages Happy Age Society-*. <http://www.mext.go.jp>
- [4] Statistics Korea, Future Population Estimate: 2015-2065.
- [5] M. S. Shin. (2007).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Elderly Education in the Lifelong Learning Period,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3(1), 1-24.
- [6] H. J. Na & H. S. Kim. (2012). The Aging Phenomenon in Europe and What It Suggests for the Old Adult Education In Korea-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Brest in France-. *K-G Association For Social Sciences*, 22(1), 3-32.

[7] J. B. Lee. (2015). Need for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the Elderly Education-With Emphasis on the Possibility of a Link between Community Oriented Activities and Elderly Educa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3, 367-399.

[8] M. O. Chang. (2008). Achievement and Perspective of Older Adult Education in Kore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11(1), 57-83.

[9] J. R. Han et al. (2009). Needs for Aging Education of the Middle Aged and the Older Adul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5(4), 131-161.

[10] J. R. Han et al. (2011). The Present Situation and Policy Suggestions on Older Adults Education in Kore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4(1), 121-149.

[11] Y. H. Gi et al.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lderly Education for Successful Old Age Lif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2] H. J. Lee. (2017). The Effect of the Senior Education Program on Cognitive and Effective Domain: Meta-analysis, Focused on Domestic Journal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3(1), 1-30.

[13] Statistics Japan.(2018). *Population Estimate*
<http://www.stat.go.jp/data/jinsui/pdf/201803.pdf>

[14]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2017). *2016 Aged Society White Paper*.
<http://www.8.cao.go.jp>

[15]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2015). *2014 Results of Daily Living Awareness Survey of the Elderly*.
<http://www.8.cao.go.jp>

[16] Y. J. Dong. (2009). Education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Focused on Policy Development, Significance and process-. *STUST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9-62. <http://society.stust.edu.tw>

[17] Y. J. Lee. (2003). Japan's Elderly Education Policy. *Humanities Studies Review*, 8, 235-260.

[18] K. Ezawa. (2013). Challenges of Learning Support for the Elderly in Aged Society. *Reference*, 751, 5-33.

[19]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2016). *Survey on Education · Lifelong Learning*.
<http://survey.gov-online.go.jp>

[20] Nagoya City Board of Education. (2015). *Provid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the Super-Aged Society*.
<https://www.suisin.city.nagoya.jp>

[21] Y. O. Seong. (2012). A Study on the Elderly Education in Aging Society: Focused on the France, Germany and U.K.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3(2), 33-52.

[22] H. K. Kim. (2016). Cognitive Changes of the Elderly Welfare Education and Policy on Older Adult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2), 149-163.

이진아(Lee, Jin Ah)

[정회원]



- 1994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99년 3월 : 일본여자대학교 대학원 인간사회연구과 사회복지전공(사회복지학 석사)
- 2006년 11월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복지
- E-Mail : jj88@cup.ac.kr